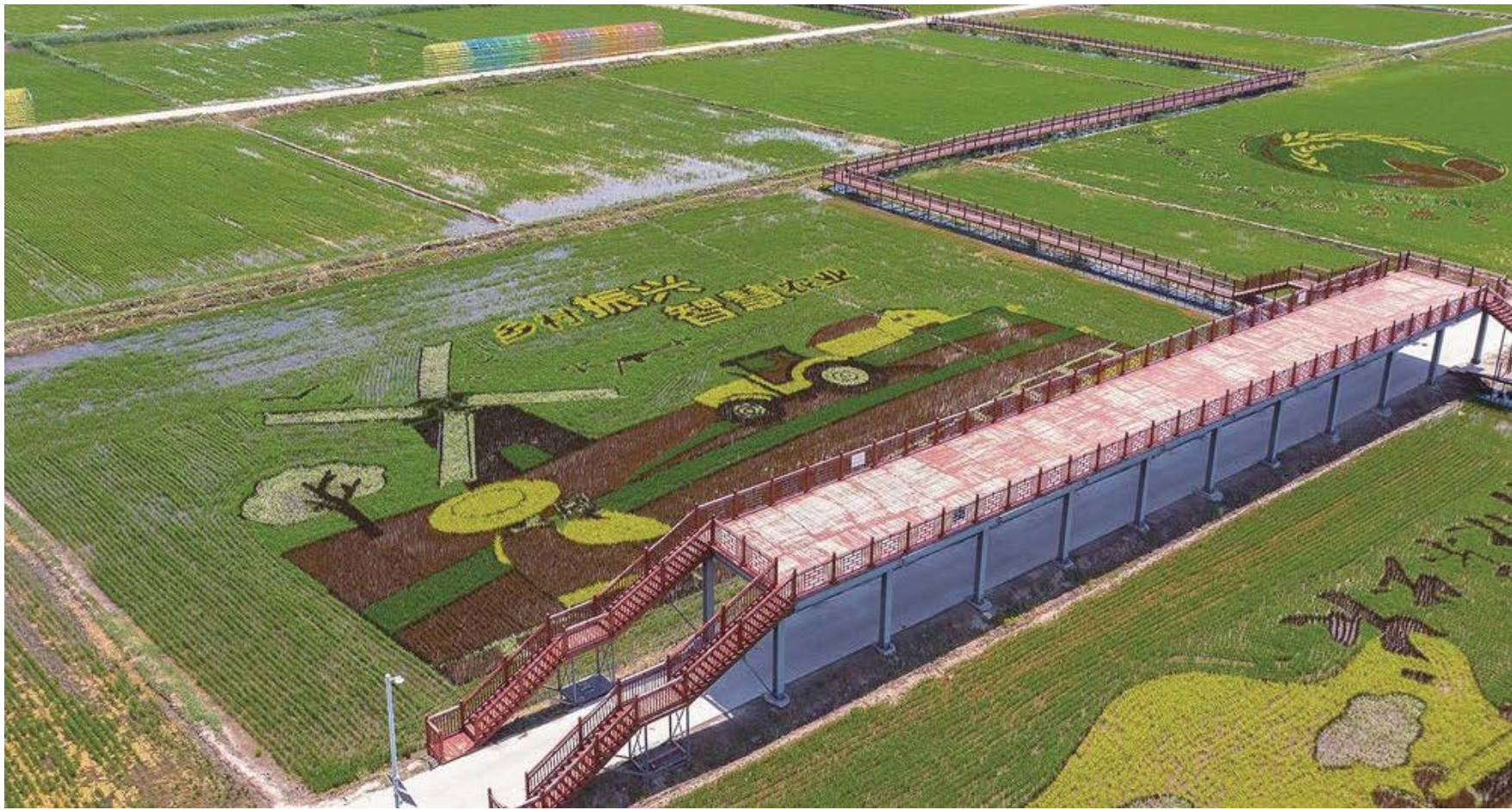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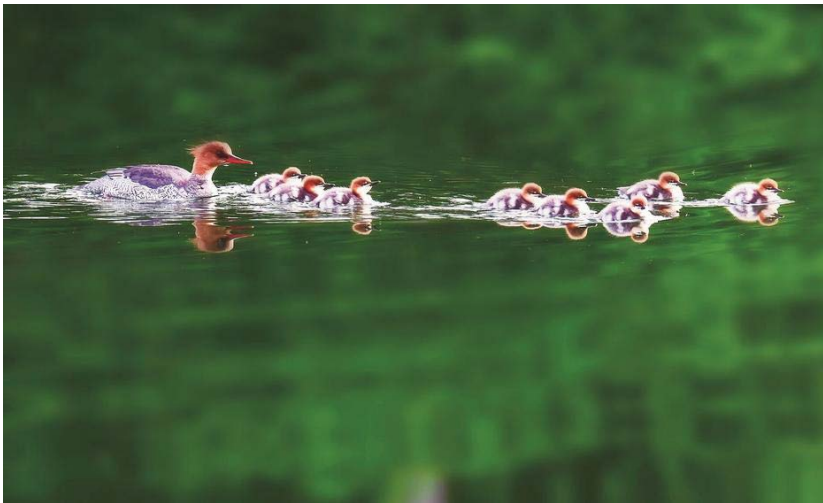
길림성 향촌생태관광 , 자연 속 힐링 만끽하다

근년래 '아름다운 향촌'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길림성 향촌 농경지에는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력사의 변화와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지 생활과 농사의 즐거움도 체험할 수 있다. 농업과 관광의 결합은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 속 힐링 체험을 동경하는 관광객들의 큰 선호를 받고 있다.



건안 '도어화향'(稻语花香) 공원의 창의적이고 활기찬 논 그림은 백년 농업 전통과 논 예술 융합으로 독특한 레저관광농업을 형성하였다. 이 공원에서는 '상아가 달로 가다'(嫦娥奔月) 등 8 개 논 그림을 창작하였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다.

/ 왕학뢰 찍음



압록강과 송화강이 흘러지나는 백산시, 전 시의 삼림피복률은 84.5%에 달하며 '립체 자원의 보물고'로 알려져있다. 백산시는 우월한 생태환경으로 사람들이 즐겨 찾는 향촌 관광지로 되고 있다. 사진은 청둥오리(中华秋沙鸭)가 맑은 물에서 노닐고 있는 장면이다.

/ 생성지 찍음



부여시 영평향 구련산촌에 들어서면 깨끗한 마을길, 가지런한 민가, 고풍스러운 경관 담장, 경사스러운 문화광장이 한눈에 안겨온다. 아름다운 향촌에서 관광객들은 편안한 여가를 즐긴다.

/ 왕학뢰 찍음



장령현 훈화원의 함박꽃이 앞다퉈 피어나고 있다. 공연팀은 멋진 춤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있다. 근년래 장령현에서는 적극적으로 향촌관광을 발전시키고 문화적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 전통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색이 있는 생태·향촌 관광산업은 장령현에 거대한 경제 활력을 가져다주었다.

/ 왕가흔 찍음



2020년, 송원시 녕강구 백도향 양가촌에서는 도시레저농업시범구를 건설, 농업개발과 레저휴가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 감상뿐 아니라 채배, 채집, 낚시 및 기타 레저오락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마다 감복송아(蟠桃) 수확 계절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온다.

/ 왕학뢰 찍음



길림성 향촌관광 4A급 경영단위인 휘남현에 위치한 서협향생태관광리조트, 관광객들이 운무에 싸여있는 밀림의 선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손신 찍음



말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돈화시 안명호반, 한복의 조화로운 생태 화면을 이루고 있다. / 리광우 찍음